

등록번호	의약과-22666
등록일자	2017.12.21.
결재일자	2017.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5)

주무관	미래건강팀장	의약과장	보건소장	
임동은	남미경	문주연	전결 12/22 홍혜정	
협조				

2017년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보고



보 건 소
의 약 과

2017년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보고

2017년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하며, 그 결과를 2018년 자살예방사업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7. 12. 20(수) 11:30~13:00
- 장 소 : 긴난
- 위원 구성 : 15명(당연직 6명, 위촉직 9명)
- 참석 현황 : 위원 5명 및 보건소 정신과 전문의 등 총10명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위촉현황	참석여부
당연직	중구청	구청장	최창식	위원장	
	중구청	부구청장	황치영	부위원장	참석
	중구청 행정관리국	국장	한수경	신규	
	중구청 복지환경국	국장	안춘자		
	보건소	소장	홍혜정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김봉년		참석
위촉직	중구의회	의원	이경일		
	중구의회	의원	정희창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안명옥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원장	염호기		참석
	서울중부경찰서	서장	김광식	신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장	강언식	신규	
	중부소방서	서장	윤득수		예방과장 이철호 참석
	중구 기독교 교구협의회	고문	곽충환		참석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대일	신규	

● 주요내용

- 중구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사업방향 자문
- 자살예방사업 협력시스템 구동을 위한 기관별 역할 논의 등

● 향후 계획

- 2017. 12. 회의결과보고 및 회의록 중구홈페이지 공개
- 2018. 1. 2018년 중구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

● 관련사진



붙임 : 회의록 1부. 끝.

2017년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정례회의

간사 : 의약과장 문주연

○ 부위원장(부구청장)

- 「2017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개회 선언

○ 보건소 의약과장

- 「2017 중구 자살관련 현황 및 주요 사업추진 현황, 향후 방향」 발표

○ 부위원장(부구청장)

-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이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
- 자살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문제들은 담당부서가 단독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건, 복지 등 복합적인 요인이 통합적으로 파악되고 지역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지원·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박충환 위원(중구기독교교구협의회 고문)

- 각동 교동협의회와 함께 살사프로젝트 등에 협력하고, 교인들 대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면 좋겠음.
- 정신과 진료 또는 상담을 받아보았으면 하는 교인을 발견했을 때 보통 정신과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 정신과 전문의 유명민

- 우울 및 자살사고에 대한 사전 자가 스크리닝 방법에 대해 안내. 단, 정신증을 감별하는 것은 아님 강조.
- 정신과적 상담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보건소는 공공기관이라 구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무도 있는 만큼 민간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음.

○ 염호기 의원(서울백병원 원장)

- 자살예방사업의 추진실적 외에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 중구 지역 특성에 맞는 좀 더 새롭고 특별한 중구만의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음. 예를 들면 제가 18년째 안산시에서 수행해오고있는 수면 질환 모니터링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겠고....2020년 자살사망률 20% 목표는 너무 보수적임.

○ 의약과장

- 자살예방사업은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로 평가되곤 하는데, 단순히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지역의 자살고위험군의 규모를 줄여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하는데 자살 고위험군을 파악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드림.

○ 이철호 의원(중부소방서 예방과장)

- 보건이나 복지사업 대상은 주소지 기준인지, 실거주지 기준인지?
- 만취자 등 후송에 있어서 주소 또는 관할구역 관계로 고충이 있음.

○ 염호기 의원(서울백병원 원장)

- 서울백병원에서 자살시도 등 무료 진료비 지원 사업을 많이하고 있으니 사례 발생 시 연계바람.

○ 부위원장(부구청장)

- 자살 이슈를 다루는 비공식적인 언론 매체가 수 없이 많고 그 중 대부분은 언론규정 등을 따르지 않음. 자살 이슈가 대중에 노출되는 것은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장

- 연구 결과에 따르면 SNS 접촉빈도가 청소년 자살 증가와 관련이 있음. 그리고 국가에서도 WHO 자살보도 규제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원칙 준수를 관리하고는 있으나 통제권밖에 있는 인터넷 언론이 현재 6,000여개가 넘는다고 함.

○ 부위원장(부구청장)

- 여러 위원들께서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고견들을 2018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7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폐회 선언. 끝.